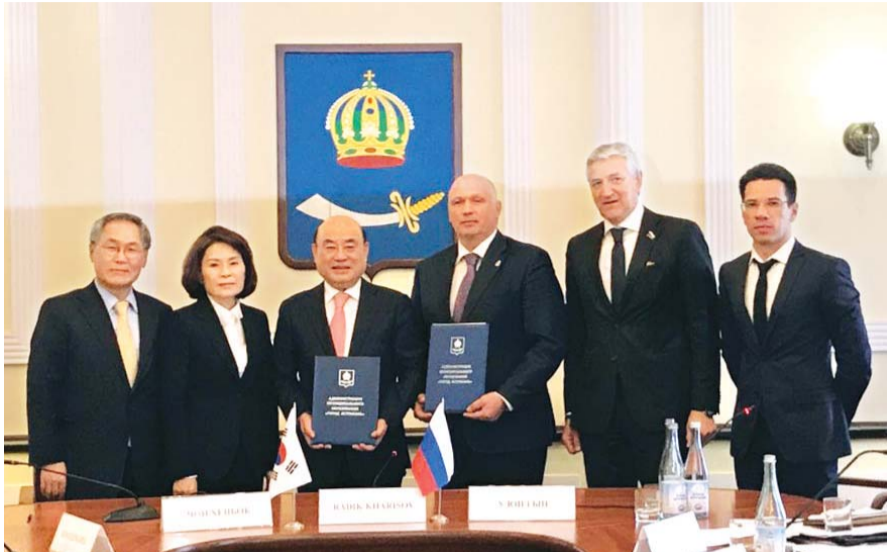


# 광양시, 러 아스트라한시와 상생 '맞손'

정현복 시장 러시아 방문  
우호도시 협약 체결  
경제 교류·투자 유치 등  
다양한 분야 상호 협력



정현복 광양시장과 우윤근 주러 한국대사, 라디크 카리소프 아스트라한시 행정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와 아스트라한시 우호도시 협약식이 열렸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러시아 카스피해 연안 항구도시 아스트라한(Astrakhan)과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현복 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양시 대표단이 지난 3일부터 러시아를 찾은 가운데 이루어졌다. 양 도시의 인연은 2018년 8월 주러시아 한국대사관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상호 의견 교환을 거쳐 우호도시 협약 체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우윤근 주러 한국대사,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장, 아스트라한주지사 등 양 도시 관계자와 축하 내외빈, 현지 언론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라디크 카리소프(Radik Kharisov) 아스트라한시 행정부 대표와 우호도시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

제·무역 교류와 상호 투자유치 ▲교육·청소년·농업·관광 등 분야별 교류협력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스트라한시는 러시아 연방 남서부 아스트라한주의 주도로서, 카스피해로부터 100km 떨어진 불가사의 삼각주에 위치해

여로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규모 교역 중심지로 발전해 왔다. 또 수산업과 제조업, 선박수리업이 발전한 물류·항만 산업의 도시이자 유명한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다. 협약식 자리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은 "한국정부의 신북방정책인 '나인 브릿지' 발

표 이후 한·러 양국 간 활발한 협력이 지방정부 간의 국제교류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양 도시의 경쟁력과 공통점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디크 카리소프 아스트라한시 행정부 대표는 "철강·항만 산업과 경제자유구역 등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광양시와의 교류는 아스트라한시가 러시아의 경제, 물류·문화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회답했다. 특히 아스트라한 상공회의소 빅토르 비노코프 회장을 비롯해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도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투자환경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그 의미를 더했다. 광양시는 중국 선전시, 필리핀 카가안데오로시, 베트남 캄남성 등 해외 도시와 자매·우호 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문화, 예술, 관광, 경제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번 러시아 아스트라한시와 우호도시 협약 체결은 광양시의 자매·우호 도시는 11개국 19개 도시로 늘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광양시 주요 정책 담당자·집행과정 공개 '국민신청실명제' 연 1회→3회 확대 운영

"시민이 원하는 사업 공개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주요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정책실명제'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담당자 및 결재자의 실명과 의견을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를 통해 공개될 수 있도록 작년 도입돼 시행돼 왔다. 1개월 동안 시민으로부터 접수 받은 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통해 해당 사업명과 관련자 실명, 주요 추진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시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기존 연 1회에서 3회로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4월과 7월, 10월에 각각 신청받는다. 올해 첫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으며, 신청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그 밖에 중점과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업명칭과 신청사유를 작성 후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 게시판, 이메일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기태 광양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국민신청실명제' 확대 운영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토양관리 이젠 스마트하게 하세요

농업정보 활용 모바일 버전  
광양시농기센터 사용 홍보



스마트폰을 활용한 '흙도랑' 앱.

광양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는 농업인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다양한 농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한국 토양환경정보시스템(http://soil.rda.go.kr/m/)의 모바일 버전 사용 홍보에 나섰다. 시는 2016년부터 광양읍, 봉강 지역을 시작으로 대표필지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읍면별 대표성을 띠고 토성이 유사한 지역을 집중 분석해 2020년까지 광양시 전역의 토양정보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년간 농촌진흥청과 주요 작물재배지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2000여 점의 미검정 필지 조사를 마쳤다. 또 기존의 친환경인증용 토양검정 및 농업인의 의뢰용 토양을 매년 3200여 점씩 분석해 한국토양정보시스템에 자료를 구축해 오고 있다. 구축된 자료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한국 토양정보시스템(http://soil.rda.go.kr/m/) 및 포털사이트에서 '흙도랑'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발송(SMS) 서비스를 통해 보다 간편

하게 토양시비처방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토양분석정보 외에 ▲작물재배 적지 추천 ▲객토량 확인 ▲작물 영양 진단 등 다양한 농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구축된 자료를 토양개량제 및 맞춤형비료 공급을 위한 기초 자료와 소득증대를 위한 작목전환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토양 또한 사람처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해야 건강하다"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농업정보를 활용하는 스마트시대인 만큼 농민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구축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광양시 '2019년 관광두레' 신규지역 선정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체



관광두레 PD모집 포스터.

광양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추진한 '2019년 관광두레'에 신규지역으로 선정돼, 시민 중심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광두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 식음, 기념품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2019년도 관광두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광두레 프로듀서 3명을 추천해, 이 중 1명이 선정됐다. '2019년 관광두레' 신규지역과 관광두레 레피디(PD)는 전국 지자체 62개, 후보자 115명이 지원한 가운데 관광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12개 지역이 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지역 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관광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유망 지역 중에서 지역의 관광두레 사업 추진 필요성, 후보자의 역량, 지자체의 협력 계획 등을 기준으로 한 서류와 면접, 워크

숍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선정됐다. 선정된 지역활동가(관광두레 PD)는 관광분야의 다양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원받고, 주민사업체는 창업멘토링, 상품판로개척 및 홍보 등 사업지역별 최대 5년간, 6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광양시 관계자는 "관광두레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광양만의 특화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광양제철 '찰각사진 재능봉사단' 사진촬영 봉사 호응



광양제철소 찰각사진 봉사단원들이 백운대 벚꽃길을 찾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진 촬영 봉사를 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시우)의 '찰각사진 재능봉사단'이 최근 백운대(금호동 소재) 벚꽃길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사진촬영 봉사활동을 펼쳤다. 찰각사진 재능봉사단은 백운대 벚꽃길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액자에 담아 전달했다. 이번 봉사에서는 호응이 좋아 계획한 물량(100개)에다 50개를 추가해 총 150개의 액자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물했다. 찰각사진 재능봉사단 단장 양경식 과장은 "백운대 벚꽃길을 찾은 분들에게 추

#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 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 10% · 융자 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주)성광에너지**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소 | 순천시 중랑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